

음악 영재들의 미래를 향한 '하모니'...찬란한 음악의 대화



2013년 제5회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의 수상자가 최종 발표됐다. 모두 460명이 예선에 참가해 지난 8월 24일 최종본선 경연을 펼친 결과 성악 6명, 바이올린 3명, 첼로 5명, 플루트 6명, 피아노 6명, 클라리넷 1명, 비올라 1명 등 최종 28명의 1위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올해 경연은 기악 종목으로는 피아노·첼로·플루트·바이올린·비올라·클라리넷 부문이 펼쳐졌고, 성악 부문은 남녀를 구분했다. 특히 기악 부문 초등부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었고, 성악은 초등부 고학년부(5·6학년)를 신설했다. 올해는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해 부문별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 될 경우 1위 수상자를 뽑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경연 부문에서 1등 부재의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화를 거듭할수록 참가자의 지원이 크게 늘어났고, 연주 수준도 높아져 점점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콩쿠르의 부문별 심사위원장의 심사평과 1위 수상자의 소감을 들어본다.

첼로

심사평·심사위원장 나덕성 중앙대 명예교수

심사위원- 장형원 교수, 신지숙 교수, 홍종진 교수, 박운수 교수
초등부는 기본이 충실하였고 자세도 좋았지만, 스케일을 좀 더 정확히 해주었으면 한다. 음정이 다소 불안하였지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중등부는 음악을 잘 느끼면서 각자의 개성을 잘 표현하며 연주해 주었다. 소리 연결과 음악적 표현이 좋았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연주였고, 잘 정리된 느낌이었다. 고등부는 음악성이 돋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음정에 좀 더 주의하고, 소리가 색깔을 바꾸는 연주를 해 나갔으면 한다. 소리가 빈약하거나 곡의 이해가 조금 아쉬워서 관련 부분을 신경 쓰길 바란다. 대학일반부는 감정 표현이 섬세하며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연주를 보여 주었다.



정민경 (초등 저학년부 1위·KIS 외국인학교)

취미로 하다가 전공으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대회에서 큰상을 받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 너무 힘들고 지겨웠는데 이제는 첼로를 더욱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로를 할 수 있게 해준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가르쳐주시고 항상 신경써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임가은 (초등 고학년부 1위·목동초등학교)

취미로 시작한 첼로가 제 인생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노력하다보니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라고 이끌어주시는 선생님, 부족한 없게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만의 색깔을 표현하는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김혜진 (중등부 1위·예원학교)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악적 표현력이 부족했던 저에게 많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섬세한 음악을 불러놓아주시는 선생님과 언제나 저의 곁을 지키며 물심양면 뒷바라지해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과 교감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은주 (고등부 1위·서울예술고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첼로를 접하고 여러 대회와 오디션에 나가지만 이번 콩쿠르는 더욱 특별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음악에 매진해 청중과의 교감을 만들어내는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과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 미국에서 저와 같은 첼로를 전공 중인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강하연 (대학일반부 1위·연세대학교)

첼로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요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저에게 이번 수상이 용기를 주는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처음 첼로를 공부했을 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면서 더 성장하는 연주자가 되어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을 저도 후배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저를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올라

심사평·심사위원장 조명희 경희대 교수

심사위원- 김성은 교수, 황대진 교수
중등부는 음악적인 표현은 좋았으나, 음정과 박자·소리 등의 기본적인 부분에 더 신경쓰기 바란다. 고등부는 Concerto의 빠른 악장을 연주한 몇 명의 참가자는 전체적으로 서두는 느낌이 들면서 프레이징(Phrasing)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기본기와 소리에 좀더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대학일반부는 연주의 깊이가 있으며, 음악적 기량이 우수했다. 곡을 잘 이해해 비올라의 소리, 악상, 비부리도 등을 잘 다루었다. 완성도가 높은 편이었고 어떤 소리를 원하는지 알고 연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신재현 (고등부 1위·선화예술고등학교)

먼저 음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곁에서 많은 응원을 주신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과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를 계기로 더욱 아름다운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은 물론 듣는 사람도 행복한 음악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클라리넷

심사평·심사위원장 유영대 충남대 교수

심사위원- 김명표 교수, 이찬범 교수
중등부는 전체적으로 테크닉과 음악성은 예전에 비해 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소리 불륨이 좀더 크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고등부는 전체적으로는 리듬이 다소 불안해 딱딱한 느낌을 받았지만 중등부에 비해 안정감이 보였다. 일부 학생의 경우 소리, 호흡, 타닝 등 기본적인 테크닉 연습이 필요했다. 대학일반부는 모든 경연자가 수준 높은 연주를 했지만 음악적·테크닉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참가자도 있었다.



박하운 (중등부 1위·예원학교)

수상 소식을 듣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도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고교 입시도 치러야 하기에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1등 소식은 제게 자신감을 찾아 주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의미있는 대회입니다. 지도 선생님과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마운 분들께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습니다.



바이올린

심사평·심사위원장 피호영 성신여대 교수

심사위원- 윤소임 교수, 정정호 교수, 양고은 교수, 김대환 교수
초등부 저학년은 좀더 집중력 있는 상태로 연주해야 하고 고학년은 매우 깔끔한 연주였지만 음정이 좀더 정확해야 한다. 리듬이 복잡해 보이는 부분도 음악적으로 많이 표현해줘야 한다. 중등부는 소리가 예쁘고 건강하지만 어려운 곡을 좀더 다양하고 고른 소리로 내는 충분한 연습이 되었으면 한다. 고등부는 수준 높은 곡을 이해하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 연주를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큰소리 뿐만 아니라 작은 소리로 대조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곡의 끝까지 완성도가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곡 선택이 테크닉적인 면을 많이 요하는 경우에는 정확도에 목표를 두고 음정 등이 틀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대학일반부는 열정을 가지고 무더운 여름에 노력한 학생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기초적인 면에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준비는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었다.



유다윤 (초등 고학년부 공동1위·새말초등학교)

부족함이 많았는데 1등상을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바이올리니스트 막심베게로프의 연주를 즐겨듣고 요즘 가장 좋아하는 곡은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3번과 8번입니다.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 늘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유정 (초등 고학년부 공동1위·늘푸른초등학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계속하게 해주시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배울 게 많은 학생으로서 앞으로 바이올린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이번 상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멋진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김채원 (고등부 1위·서울예술고등학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음악의 폭을 넓혀주시는 지도선생님과 반주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청중과 소통하는 음악, 감동과 힐링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좋은 계기가 될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 1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경매는 무섭고, 내 경매는 쉬운 이유?

서른아홉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현정 지음 | 360쪽 | 값 16,000원

특별선물
공실률 제로!
초간단 셀프
인터뷰

경매는 돈 좀 있는 사람들만의 재테크가 아니다!
돈 되는 집 고르기부터 망고생 없는 명도까지 OK!

저자 투자물건 상세내역 대공개!
경매 상황별 성공증 풀여주는 속 시원한 Q&A, 깨알 팁이 가득!

저자는 우연히 만난 경매가 인생을 바꿨다고 말한다. 빌라 전세금 9천만원이 전세산이던 저자는 늦둥이 셋째를 가진 후 깨끗한 32평 아파트를 살고 싶어졌고, 경매를 통해 첫 낙찰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그렇게 내 집을 장만한 후, 경매의 매력에 깨달았고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 저자는 경매할 때 어려운 것이 싫어 복잡한 권리분석을 할 필요 없는 깨끗한 집만 골랐다. 그게 바로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6단계목표설정-권리분석-현장조사-입찰-잔금납부-명도로 경매 과정을 총정리했다. 특히 경매투자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권리분석'과 '명도' 부분에 더욱 세심한주의를 기울여 '잃어지는 권리를 찾아라!' '세입자가 배당받는 집을 골라라' '점유자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대화법'처럼 속 썩이지 않고 경매하는 노하우를 꼼꼼하게 알려준다. 할 수 있는 경매에 집중하면 경매는 쉬워진다. 그동안 경매가 무섭거나 복잡해서 망설였던 이제 그 답답함을 털고 돈 되는 집 고르기부터 망고생 없는 명도까지 손조로 향해를 시작해보자.

☎ 문의: 02-330-9824

날마다 사표를 쓰는 직장인을 위한 고민해결 가이드

인문·사회과학 대가들이
직장인 고민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면?

직장인 고민, 답은 이미 나와있다

니시우치 히로무 지음 | 최려진 옮김 | 216쪽 | 값 12,800원

인간관계, 성과, 연봉, 승진, 돈 관리, 가정 문제...
행동경제학, 조직행동론, 긍정심리학이 제시하는 명쾌한 해법

직장 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왜냐하면...

왜 나는 승진과 연봉이 없을까? 왜 연봉이 오르지 않을까? 왜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상사에게 치이고, 부하 직원에 차받고, 직장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인간관계, 성과, 연봉, 승진, 돈 관리, 가정 문제 등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직장인의 해묵은 고민들에 대해 경제학, 심리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에 입각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조직행동론에서 배우는 '인간관계 개선' 비결, 경제 상사 이론이 밝히는 '연봉 인상의 수수께끼', 우리의 허술한 금전 개념에 일침을 놓는 행동경제학 '돈 관리', 긍정심리학이 제시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방법', 업무와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법,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해지는 방법' 등 통계와 과학적 실증이 뒷받침된 학문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직장인 고민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한다.

저자 니시우치 히로무(西内 裕)
도쿄 대학 의과부 건강과학과 생물통계학 전공을 졸업, 도쿄대 의료커뮤니케이션학 교수, 대학병원의 의료정보네트워크연구소 부센터장을 역임, 하버드 의대 데이터파워연구소 객원 연구원.

☎ 문의: 02-3142-0867